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4호 [루게 제23461호] 주제 100 (2011)년 5월 24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자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운 혁명사적물들과 유물, 자료들 보충전시

백두대산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절세의 위인, 백두산장군들을 높이 모신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떨쳐온 긍지높은 위업이다. 성스러운 그 렉사의 갈피마다에 력력히 어린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영도업적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우나이다.》

백두대산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절세의 위인, 백두산장군들을 높이 모신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떨쳐온 긍지높은 위업이다. 성스러운 그 렉사의 갈피마다에 력력히 어린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영도업적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우나이다.》

백두산장군들의 위인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참관자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전변상들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사진들도 전시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수령님과 전우관》에는 절세의 위인들께서 한눈에 알아 어엿한 일군들로, 참된 혁명가로 키워주신 고귀한 사랑과 믿음을 전하는 뜻깊은 혁명사적물들과 유물, 자료 등이 최근년간에 새로 전시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와 함께 적으신 사진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야전송동부, 털모자 그리고 깊은 사연이 깃든 돌사건전본을 비롯하여 새로 전시된 혁명사적물들과 전시물들은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배부른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의 송고한 세계를 감명깊이 전하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된 새로운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 유물 등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을 모셔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 태양의 령사는 세대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고있음을 절감하고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동지이시며 은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수령부, 장군복을 대대로 누리는 우리 군민의 높은 존엄과 크나큰 영광을 다시금 실감깊이 간직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따라 이 땅우에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는 우리 군민의 높은 존엄과 크나큰 영광을 다시금 실감깊이 간직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따라 이 땅우에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는 우리 군민의 높은 존엄과 크나큰 영광을 다시금 실감깊이 간직하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된 새로운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 유물 등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을 모셔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 태양의 령사는 세대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고있음을 절감하고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동지이시며 은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수령부, 장군복을 대대로 누리는 우리 군민의 높은 존엄과 크나큰 영광을 다시금 실감깊이 간직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따라 이 땅우에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는 우리 군민의 높은 존엄과 크나큰 영광을 다시금 실감깊이 간직하고있다.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도시로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평양시에 또 하나의 거창한 건설작전이 펼쳐졌다. 그것이 바로 만수대년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을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이다. 지금 당의 구상을 받들고 펼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기초공사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건설현장지휘부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만수대지구의 넓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려고 만수대거리 살림집들과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며 나머지부지는 공영화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만수대년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이 더 환히 열리게 되며 평양시의 중심축이 완전히 살아나게 될것이다. 도시건설은 단순히 공학기술적문제 아니라 사상과 신념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 건설사업이 어버이수령님을 친세만세 높이 받들고 모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평양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 환경성이 집대성되어있는 조선혁명의 심장이라 우리 조국의 수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 가장 훌륭하게 건설하러는것이 나의 구상이고 결심입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평양시에 또 하나의 거창한 건설작전이 펼쳐졌다. 그것이 바로 만수대년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을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이다. 지금 당의 구상을 받들고 펼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기초공사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건설현장지휘부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만수대지구의 넓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려고 만수대거리 살림집들과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며 나머지부지는 공영화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만수대년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이 더 환히 열리게 되며 평양시의 중심축이 완전히 살아나게 될것이다. 도시건설은 단순히 공학기술적문제 아니라 사상과 신념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 건설사업이 어버이수령님을 친세만세 높이 받들고 모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평양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 환경성이 집대성되어있는 조선혁명의 심장이라 우리 조국의 수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 가장 훌륭하게 건설하러는것이 나의 구상이고 결심입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평양시에 또 하나의 거창한 건설작전이 펼쳐졌다. 그것이 바로 만수대년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을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이다. 지금 당의 구상을 받들고 펼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기초공사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건설현장지휘부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만수대지구의 넓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려고 만수대거리 살림집들과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며 나머지부지는 공영화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만수대년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이 더 환히 열리게 되며 평양시의 중심축이 완전히 살아나게 될것이다. 도시건설은 단순히 공학기술적문제 아니라 사상과 신념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 건설사업이 어버이수령님을 친세만세 높이 받들고 모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평양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 환경성이 집대성되어있는 조선혁명의 심장이라 우리 조국의 수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 가장 훌륭하게 건설하러는것이 나의 구상이고 결심입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의 기상 나라치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신충혁 적음

남포-평양 바다물수송관건설 적극 추진

남포-평양시 바다물수송관 건설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수도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기 위해 도시경영성과 평양시, 남포시에서는 수송관건설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조직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평양시상수도관리국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사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바다물공급수 보급장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뿔뿔이 뚫려온 수송관이 힘있게 건설되고있다. 남포항, 평남해수리공장 로동자들이 굴착기를 비롯한 기

남포-평양시 바다물수송관 건설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수도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기 위해 도시경영성과 평양시, 남포시에서는 수송관건설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조직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평양시상수도관리국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사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바다물공급수 보급장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뿔뿔이 뚫려온 수송관이 힘있게 건설되고있다. 남포항, 평남해수리공장 로동자들이 굴착기를 비롯한 기

남포-평양시 바다물수송관 건설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수도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기 위해 도시경영성과 평양시, 남포시에서는 수송관건설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조직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평양시상수도관리국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사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바다물공급수 보급장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뿔뿔이 뚫려온 수송관이 힘있게 건설되고있다. 남포항, 평남해수리공장 로동자들이 굴착기를 비롯한 기

천만년 높이 받들어모실 한마을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월에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뭇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성을 기원하고있습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월에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뭇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성을 기원하고있습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월에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뭇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성을 기원하고있습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월에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뭇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성을 기원하고있습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월에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뭇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성을 기원하고있습니다.》

주체철생산에 계속 박차를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대승리를 공고히 다지며 생산을 높이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을 생산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대승리를 공고히 다지며 생산을 높이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을 생산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대승리를 공고히 다지며 생산을 높이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을 생산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탄광을 힘있게 지원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전진을 주력세우는데 힘을 기울여 주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막강작업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각종 공구들을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석탄이 광량 나와야 비로소 석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한 평성시와 화강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전진을 주력세우는데 힘을 기울여 주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막강작업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각종 공구들을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석탄이 광량 나와야 비로소 석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한 평성시와 화강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전진을 주력세우는데 힘을 기울여 주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막강작업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각종 공구들을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석탄이 광량 나와야 비로소 석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한 평성시와 화강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전진을 주력세우는데 힘을 기울여 주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막강작업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각종 공구들을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석탄이 광량 나와야 비로소 석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한 평성시와 화강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석탄전진을 주력세우는데 힘을 기울여 주면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막강작업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각종 공구들을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석탄이 광량 나와야 비로소 석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한 평성시와 화강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

만수대지구건설장에 많은 세멘트를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건설장에 보내주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자기들이 삼가울린 편지를 보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애정을 간직하고 매달 맡겨진 세멘트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생산동원작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요목표를 통일하여 크게 내세우고 모든 공정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생산을 끝

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건설장에 보내주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자기들이 삼가울린 편지를 보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애정을 간직하고 매달 맡겨진 세멘트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생산동원작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요목표를 통일하여 크게 내세우고 모든 공정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생산을 끝

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건설장에 보내주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자기들이 삼가울린 편지를 보시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애정을 간직하고 매달 맡겨진 세멘트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생산동원작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요목표를 통일하여 크게 내세우고 모든 공정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생산을 끝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한 세멘트를 운반하는 트럭

대고조의 불길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거찾는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자이기 전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변경직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년간 변경직공장에서 발달 말려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기본생산상품은 지난 시기 2배, 확대품종은 무려 수십종이나 더 늘어났다. 특히 조선훈공의 질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더욱 향상됨으로써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질체고문제를 놓고 기술준비실장 리연옥동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의 사업에서 몇가지 주목되는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품의 질은 기술수준이나 생산조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요인에도 관련되지만 중요하게는 생산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주인공적 성실하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 공장의 새 제품개발과정을 분석해보면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면 충분한 착용시범을 진행한다. 즉 나이, 기호와 취미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무늬와 색깔의 옷을 새로 개발한 천으로 만들어 신발된 임의의 종업원들이 한달이상 입고 생활하는 과정에 우월함을 찾게 하고 보다 질 좋게 완성해나간다.

연제인 공장의 기술자들이 새 옷감편을 개발하였을 때였다. 이것을 다량생산에 넣기는 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생각이 깊었다. (옷을 지어입은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가를 따져가던 일군들은 새로 개발한 천으로 몇명의 종업원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기를 하였다.

먼저 새 옷감편으로 나이와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옷을 만들어 혁신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늘 입고다니며 편의 기술적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실험실적조건에서보다 햇빛을 직접 받을 때의 찬냉각과 쓸림상태에서의 견고성, 세탁조건에 따르는 색깔변화 등 각이한 기술적지표들을 더 정확히 확보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은 큰 몸을 들이지 않고 새 제품평가사업을 군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착용시범에 참가한 사람들은 혁신자들로서 대부분의 직장들이 다 있다. 이런 경우 그들과 늘 같이 생활하는 생산자대중은 앞으로 짜게 될 천의 색깔과 무늬, 제질 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발적인견들이 수없이 나왔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종합되어 기술자들의 새 제품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공장에서 수요자들에서 인기가 있는 새로운 옷감들을 편이 내내나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공장일군들은 생산자대중에게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마다에 인민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이 깃든다는것을 깊이 심어주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어느날 생산현장을 돌아보던 공장일군인 홍영실동무는 한

기대품이 자기도 새 기대만 말으면 얼마든지 질 좋은 제품을 팽팡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기대품과 마주앉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품의 질은 생산자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평일생산 및 재정부족화, 질체고문제가 있다. 어느 직장의 박동무는 자기 고대에 천을 더 생산하여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하지만 자기 같으면 이런 경우 일생산 및 재정부족화에서 계획수행률이 높은 그가 응당 평가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평가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즉 박동무의 경우에 그가 생산한 천의 세질과 날실의 조직체제새가 높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획수행률에서 그만큼 고쳐주었다.》

한편 같은 작업반의 김동무의 경우는 비록 계획을 100%로 수행하였지만 제품의 질이 좋아 높이 평가되었다. 김동무는 오래된 실비를 맡겼고 생산질적적으로 기술혁신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든 것이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요하게 틀어쥔것이 계획수행률에서 질적평가를 위주로 하는 일생산 및 재정부족화였다.

실례가 있다. 어느 직장의 박동무는 자기 고대에 천을 더 생산하여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하지만 자기 같으면 이런 경우 일생산 및 재정부족화에서 계획수행률이 높은 그가 응당 평가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평가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즉 박동무의 경우에 그가 생산한 천의 세질과 날실의 조직체제새가 높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획수행률에서 그만큼 고쳐주었다.

한편 같은 작업반의 김동무의 경우는 비록 계획을 100%로 수행하였지만 제품의 질이 좋아 높이 평가되었다. 김동무는 오래된 실비를 맡겼고 생산질적적으로 기술혁신

안도 받아들이고 설비를 예호 관리하면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생산을 하여 합격품의 비중을 높였다.

결국 일생산 및 재정부족화에서 김동무가 높이 평가되었고 그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이 작업반, 직장단위에서 벌어졌다.

이 일을 계기로 공장의 많은 설비들이 새것이든 다름없이 정비수리되고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보다 높은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제품의 질체고를 위한 투쟁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어 전반적인 제품의 질은 현저히 높아졌다.

우리는 변경직공장 일군들의 사업을 통하여 인민의 총복된 자각이 높을 때 제품의 질이 높아질수 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새기게 되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려면 경공업발전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대고조제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의 주원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신념, 김철의 실천력으로 인민생활대고조제로 전진군에서 승리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불같은 열정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1. 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때는 5월에 들어와서도 생산질적적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철로떼계의 호소에 화답

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였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걸린 문제점을 제때에 풀이주는 한편 모든 단위에서 일생산 및 재정부족화를 실속있게 하여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 지도도 밑에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열선된 천에서 물을 말끔히 짜주는 기술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술혁신단과 합리화단을 생산에 받아들여 새로운 전기와 열감을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진선동팀들을 동원하여 경제선동의 복수리를 높이 올려 나감으로써 온 공장에 생산물적인 열풍이 새차게 불어치게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도 밑에 공장에

서는 혁신자촉해모임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혁신의 불결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제1 1종합작업반에서 새차게 타올랐다. 태환직업반의 생산자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설비관리를 잘하여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올리면서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제2 2종합작업반, 가공종합작업반, 공구종합작업반을 비롯한 공장의 모든 단위에서도 무뎠다는 예로와 난관을 맞아 싸우고 나가면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새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경련애국사이다공장에서

경련애국사이다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맞닿고 시련한 사이이다를 비롯한 청량음료로 더 많이 생산하여 수에근로자들에게 공급할 한마음 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선군봉화상징위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수송기부 수려받은 단위에게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올리며 발달 말려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그들속에서 가지는 좋은 경험과 창의인, 새로운 기술적발명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조직적사업을 다량한 혁신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 밑에

공정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려면 제품질체고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므로 그러저런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기 쉽게 해설해줌으로써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결이 새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공정참모부에서는 기술혁신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가지는 기술혁신을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를 맡아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공장의 실정에 맞는 전자식무부차단기를 도입하는 기술혁신에 성공하여 생산

을 높이면서도 전기를 극력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작업반장 김광희동무를 비롯한 보수작업반원들은 부속품공장에서 대담하게 새로운 가공방법을 받아들여 설비의 보수수기를 높일 수 있게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여주었다.

공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이 과학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올해에 들어와서 만드 수많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나갔다. 그리하여 사이이다와 가지기 과일단물을 비롯한 청량음료생산을 부쩍 높이면서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호평을 받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요구대로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인민생활대고조제의 해인 올해를 더 높은 생산성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밑에 총공격전선의 기술을 파강히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연산리공장의 누구나 주인 된 자각을

연산리공장의 누구나 주인 된 자각을 안고 이 한두사람적만이 아니라 한사람적만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공정에서는 질 좋은 제품생산에 있어 모범인 종업원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하면서 모든 기대품들이 이러한 제품을 생산해내도록 인민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이 깃들도록 하고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설비들을 등자와 같이 아끼고 알뜰히

관리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도 응당한 주목을 기울이고있다. 공정에서는 기술혁신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고 있다. 현장경험이 적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도 하고 경험이 풍부한 기대품들

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의 건전한 기술기능수준이 한데 뭉쳐나고 제품의 질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아졌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주인된 자각을 안고 참가하니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질이 높아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보여주었다.

리 화순동무가 지난 10여년동안 인간의 협동농장들을 찾아다니며 농사일을 돕고있는 바쁜 속에서도 해마다 집에서 많은 집집들을 걸터 인민군부대에 보내주었다는 사실, 그들부부가 대학원에 살고있는 특유형에군인을 8년동안이나 친동생처럼 돌보아주고 있는 사실, 언젠가 권위직을 맡고있는 한 특유형에군인이 임원하는 소식을 듣고 일일 준비를 해주고 명절마다 마담의 가정을 찾아가는 뜨거운 정성을 다하여 마을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야기...

참으로 그의 가정의 생활의 갈피마다에는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곁에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기려는 순결한 마음이 어려웠다. 순모들의 고결한 지향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전 박준담동무와 가족들은 붉은 기발들을 준비해 가지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의 것들이었던 통일협동농장 5작업반 포전으로 나왔다. 그들은 붉은 기발을 작업반포전머리에 걸속이 꽃아놓으며 더욱더 속삭이듯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힘 한 눈두덩이를 견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들은 영원히 장군님을 따르는 한결에서 자기를 강고리 불태우려는 애국헌신의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의 삶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손영희

리 화순동무가 지난 10여년동안 인간의 협동농장들을 찾아다니며 농사일을 돕고있는 바쁜 속에서도 해마다 집에서 많은 집집들을 걸터 인민군부대에 보내주었다는 사실, 그들부부가 대학원에 살고있는 특유형에군인을 8년동안이나 친동생처럼 돌보아주고 있는 사실, 언젠가 권위직을 맡고있는 한 특유형에군인이 임원하는 소식을 듣고 일일 준비를 해주고 명절마다 마담의 가정을 찾아가는 뜨거운 정성을 다하여 마을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야기...

참으로 그의 가정의 생활의 갈피마다에는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곁에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기려는 순결한 마음이 어려웠다. 순모들의 고결한 지향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전 박준담동무와 가족들은 붉은 기발들을 준비해 가지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의 것들이었던 통일협동농장 5작업반 포전으로 나왔다. 그들은 붉은 기발을 작업반포전머리에 걸속이 꽃아놓으며 더욱더 속삭이듯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힘 한 눈두덩이를 견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들은 영원히 장군님을 따르는 한결에서 자기를 강고리 불태우려는 애국헌신의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의 삶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손영희

보여주었다.

리 화순동무가 지난 10여년동안 인간의 협동농장들을 찾아다니며 농사일을 돕고있는 바쁜 속에서도 해마다 집에서 많은 집집들을 걸터 인민군부대에 보내주었다는 사실, 그들부부가 대학원에 살고있는 특유형에군인을 8년동안이나 친동생처럼 돌보아주고 있는 사실, 언젠가 권위직을 맡고있는 한 특유형에군인이 임원하는 소식을 듣고 일일 준비를 해주고 명절마다 마담의 가정을 찾아가는 뜨거운 정성을 다하여 마을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야기...

참으로 그의 가정의 생활의 갈피마다에는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곁에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기려는 순결한 마음이 어려웠다. 순모들의 고결한 지향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전 박준담동무와 가족들은 붉은 기발들을 준비해 가지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의 것들이었던 통일협동농장 5작업반 포전으로 나왔다. 그들은 붉은 기발을 작업반포전머리에 걸속이 꽃아놓으며 더욱더 속삭이듯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힘 한 눈두덩이를 견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들은 영원히 장군님을 따르는 한결에서 자기를 강고리 불태우려는 애국헌신의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의 삶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손영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방직공업부에서 비닐론, 스프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화학섬유를 가지고 질기고 문양이 고우며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천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방문기

비닐론천생산을 늘인다

함흥모방직공장을 찾아서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나간 결정방직직장 현장에 들이셨다.

뜬땀 흘리는 통들마다에 가득 담긴 비닐론부산물들을 호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공장일군인 박옥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얼어있다.

저녁 그늘이 깊어졌다. 장래한 새빛의 서곡인양 16년만에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주체비닐론생선의

《제곱의 질은 기술수준이나 생산조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요인에도 관련되지만 중요하게는 생산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주인공적 성실하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 공장의 새 제품개발과정을 분석해보면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면 충분한 착용시범을 진행한다. 즉 나이, 기호와 취미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무늬와 색깔의 옷을 새로 개발한 천으로 만들어 신발된 임의의 종업원들이 한달이상 입고 생활하는 과정에 우월함을 찾게 하고 보다 질 좋게 완성해나간다.

연제인 공장의 기술자들이 새 옷감편을 개발하였을 때였다. 이것을 다량생산에 넣기는 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생각이 깊었다. (옷을 지어입은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이 공장의 새 제품개발과정을 분석해보면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면 충분한 착용시범을 진행한다. 즉 나이, 기호와 취미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무늬와 색깔의 옷을 새로 개발한 천으로 만들어 신발된 임의의 종업원들이 한달이상 입고 생활하는 과정에 우월함을 찾게 하고 보다 질 좋게 완성해나간다.

연제인 공장의 기술자들이 새 옷감편을 개발하였을 때였다. 이것을 다량생산에 넣기는 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생각이 깊었다. (옷을 지어입은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이 쏟아져내리는 광경을 바라 보느라 나의 가슴은 이를 할수 없는 격정으로 뜨겁게 젖어 있었다.

저녁 그늘이 깊어졌다. 장래한 새빛의 서곡인양 16년만에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주체비닐론생선의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얼어있다.

저녁 그늘이 깊어졌다. 장래한 새빛의 서곡인양 16년만에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주체비닐론생선의

이 쏟아져내리는 광경을 바라 보느라 나의 가슴은 이를 할수 없는 격정으로 뜨겁게 젖어 있었다.

저녁 그늘이 깊어졌다. 장래한 새빛의 서곡인양 16년만에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주체비닐론생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축산업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보여야 하겠다.》

강제 돼지공장의 일군들이 과학적인 종축체계를 세워 놓고 고기생산에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주제 97 (2008)년 1월 11일 맹만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았고 강제 돼지공장을 찾아온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공장을 좋은 자리에서 멋있게 건설하였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종축체계를 바르도록 고기생산에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후 수백마리의 우랑품종의 종자돼지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시 우랑품종의 종자돼지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 들었다. 이들은 과학적인 종축체계를 세우는데 선진적인 기술을 돌려면서 먹성이 좋고 증체가 높은 품종, 새끼를 많이 낳는 품종, 생활력이 강한 품종의 3원종에 의한 교잡방법으로 1대잡종 종자돼지리수수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도 밑에 지범 김복희, 기사 김원식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과학적인 종축체계를 세워놓고 많은 우랑품종의 1대잡종종자돼지를 생산하여 고기생산에 비약적으로

강제 돼지 공장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도인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많은 종자돼지를 보내주었다.

종축사업반 새끼내기호동의 리수군, 김원희동무를 비롯한 한 새끼돼지관리공들은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첫째까지의 35일동안에 새끼돼지마리당 무게를 10kg 이상 늘여 육성작업반에 보내주고있다.

이것 종업원들은 현대적인 종축시설과 수단을 리용하여 어미돼지의 인공수정 및 사양관리를 높은 과학기술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육성사업반의 초급일군들과 관리공들은 온습도조절과 공기갈이, 먹이, 물주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쪼끔더 넓은 새끼돼지들의 육성공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장의 종축사업반에서는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시 우랑품종의 돼지종자들과 수백마리의 1대잡종종자돼지들을 잘 기르면서 새끼돼지생산을 늘이고있다. 비옥호등에 있는 1대잡종종자돼지들이 지금 한껏 자라고있는데 다 크면 한마리당 무게가 5.0kg 이상 나가게 된다. 거의 모든 일군들과 축산전문가들이 공장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에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지난 3월 전국적인 현대화된 돼지공장건설사업의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강제 돼지공장은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고 공동순회수송기 수혜받았다.

특파기자 동세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령대의 역센 뿌리가 되려는 애국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도 탈기 여기며 아울러 1분 1초를 내릴을 위한 위급상황도 잊어버리지 마라.》

올해 1월 공공시설을 위한 개천시당 책임비서 박준담동무의 가슴은 새차게 높여졌다. 농업부에서 유기농업을 비롯한 선진경영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공시설의 구질구질을 새겨넣을 수 있는 새시대 시대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우렁이유기농업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의 이련 결심은 불같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우렁이양식방법과 우렁이에 의한 농사방법 등이 상세히 적힌 참고자료를 시인의 협동농장들에 보내 주고도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어느날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형성을

불라는 애국으로 이어가는 삶의 자욱

개천시당 책임비서 박준담 동무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던 그의 마음은 허전했다. 생각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굵게 진행되고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업을 빨리 받아들일수 있었는가.)

길을 갈때도, 아침에 남먼저 잠을 잤때도 그의 생각은 줄곧 이렇게 흘러다.

나쁜 습관을 남정정 해버리고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데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 하는 안현의 리 화순동무가 붉은 띠를 띤 말을 끄는 것이었다.

《난 지금 당신이 꾸는 생각이 하고있는지 잘 알아요. 종이 닿고 맛보면 가짜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거장에서부터 우렁이를 많이 길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으면 해요.》

순간 그 말은 박준담동무의 가슴에 정확하게 미쳐왔다. 안현의 마음이 고마웠다.

불현듯 지나온 나날들이 새삼스럽게 들어켜졌다.

당신의 뜻을 순결하게, 성실하게 받드는것을 당일군가정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지난 10여년동안 농장별에서 살다 싶이 안현이었다.

이렇게 되어 박준담동무가 살고있는 집의 한 살림방이 황토색 우렁이를 기르는 서식장으로 꾸러졌다. 또한 우렁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수입계의 비닐그릇이 방안에 메꾸어 채워졌다. 집도 락에는 우렁이먹이감으로 리용할수 있는 먹이풀을 키우는 비닐막막은 실이 생겼었다. 박준담동무는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우렁이서식에 관한 정열을 쏟아부었다. 리 화순동무도 남편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자레로 먹이보장조건까지 갖추어놓은 리 화순동무는 이미 우렁이에 의한 농사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먹이를 돌보는 일은 박준담동무가 맡아주기로 하였다. 박준담동무는 이 미 우렁이에 의한 농사방법을 받아들여 그 먹이를 돌보는 일은 박준담동무가 맡아주기로 하였다.

자레로 먹이보장조건까지 갖추어놓은 리 화순동무는 이미 우렁이에 의한 농사방법을 받아들여 그 먹이를 돌보는 일은 박준담동무가 맡아주기로 하였다.

불라는 애국으로 이어가는 삶의 자욱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던 그의 마음은 허전했다. 생각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굵게 진행되고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업을 빨리 받아들일수 있었는가.)

길을 갈때도, 아침에 남먼저 잠을 잤때도 그의 생각은 줄곧 이렇게 흘러다.

나쁜 습관을 남정정 해버리고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데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 하는 안현의 리 화순동무가 붉은 띠를 띤 말을 끄는 것이었다.

《난 지금 당신이 꾸는 생각이 하고있는지 잘 알아요. 종이 닿고 맛보면 가짜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거장에서부터 우렁이를 많이 길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으면 해요.》

순간 그 말은 박준담동무의 가슴에 정확하게 미쳐왔다. 안현의 마음이 고마웠다.

불현듯 지나온 나날들이 새삼스럽게 들어켜졌다.

당신의 뜻을 순결하게, 성실하게 받드는것을 당일군가정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지난 10여년동안 농장별에서 살다 싶이 안현이었다.

이렇게 되어 박준담동무가 살고있는 집의 한 살림방이 황토색 우렁이를 기르는 서식장으로 꾸러졌다. 또한 우렁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불라는 애국으로 이어가는 삶의 자욱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던 그의 마음은 허전했다. 생각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굵게 진행되고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업을 빨리 받아들일수 있었는가.)

길을 갈때도, 아침에 남먼저 잠을 잤때도 그의 생각은 줄곧 이렇게 흘러다.

나쁜 습관을 남정정 해버리고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데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 하는 안현의 리 화순동무가 붉은 띠를 띤 말을 끄는 것이었다.

《난 지금 당신이 꾸는 생각이 하고있는지 잘 알아요. 종이 닿고 맛보면 가짜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거장에서부터 우렁이를 많이 길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으면 해요.》

순간 그 말은 박준담동무의 가슴에 정확하게 미쳐왔다. 안현의 마음이 고마웠다.

불현듯 지나온 나날들이 새삼스럽게 들어켜졌다.

당신의 뜻을 순결하게, 성실하게 받드는것을 당일군가정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지난 10여년동안 농장별에서 살다 싶이 안현이었다.

이렇게 되어 박준담동무가 살고있는 집의 한 살림방이 황토색 우렁이를 기르는 서식장으로 꾸러졌다. 또한 우렁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불라는 애국으로 이어가는 삶의 자욱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던 그의 마음은 허전했다. 생각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굵게 진행되고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업을 빨리 받아들일수 있었는가.)

길을 갈때도, 아침에 남먼저 잠을 잤때도 그의 생각은 줄곧 이렇게 흘러다.

나쁜 습관을 남정정 해버리고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데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 하는 안현의 리 화순동무가 붉은 띠를 띤 말을 끄는 것이었다.

《난 지금 당신이 꾸는 생각이 하고있는지 잘 알아요. 종이 닿고 맛보면 가짜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거장에서부터 우렁이를 많이 길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으면 해요.》

순간 그 말은 박준담동무의 가슴에 정확하게 미쳐왔다. 안현의 마음이 고마웠다.

불현듯 지나온 나날들이 새삼스럽게 들어켜졌다.

당신의 뜻을 순결하게, 성실하게 받드는것을 당일군가정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지난 10여년동안 농장별에서 살다 싶이 안현이었다.

이렇게 되어 박준담동무가 살고있는 집의 한 살림방이 황토색 우렁이를 기르는 서식장으로 꾸러졌다. 또한 우렁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영광의 땅에 시대의 진군가 더 높이 울려가리

자강도에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

자강도에 예술단의 미더운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겐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배백의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있다.

언제나 당과 수령을 받들어 시대의 기수, 나팔수로 혁명의 진군가를 높이 울려온 이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신념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이 선군시대를 선도하고 주동하는 시대적역명을 다할 때 당의 선군령도는 불패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할것입니다.》

정말 폭발 같은 일이였다. 지난 4월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도내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무한한 행복복악에 휩싸였다.

자강방에 위대한 변혁의 역사를 펼쳐주신 아버지장군님,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장군님을 우러러 그들은 다함없는 흥보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한껏 터쳤다. 그것은 그대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열심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담은 신념의 노래가 되어 장내를 뜨겁게 격동시켰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연의 매 종목마다 잠깐이라도 해주시며 나라가 어려움

을 겪던 고난의 그 시기 경제정신상을 창조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심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시었다고, 당정책적요구와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형상을 잘하였다 하고 하시면서 예술단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만세의 영광의 무대에서 터치는 창작가, 예술인들은 끝내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쳐온 승리자들이 영광의 무대에서 터치는 환희와 희열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지나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광명과 불타는 열정으로 쉬임없이 벌려간 창작전투와 예술공연의 나날들, 강계정신이 내재하는 도안의 공장과 농촌, 벌목장들과 발전소건설장들을 찾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울려가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두렵게 되새겨졌다. 그대로 공연무대에 있던 생산전투들과 찬바람 불어오는 발전소건설장들이 한눈에 안겨오도록 힘써 그려내며마다 승리의 노래들이 자신들을 이겨내며 즐기치게 이었던 경제선동의 날과 달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정경 그 길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대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록한 자욱을 따르는 성스러운 길이었기에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몰랐고 언제나 혁명적락관으로 심장을 불태웠으며 그 길에서 투쟁과 삶의 보람을 한껏 느끼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들먹이는 가슴들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뛰는 심장마디에 불타는 맹세를 새겨넣었다.

—장군님의 정든 고장인 자강 땅에 시대의 진군가, 혁명의 진군가를 더 높이 울려가리! 영광의 그날의 사연을 전하여 주며 단장 장흥진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박하고 미숙한 우리들의 공연을 보시고 그렇듯 높은 평가를 얻어 주셨으니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강도사람들에 대한 것이 크시기에 안겨주신 믿음도 이렇듯 큰것입니다.》

격동된 심정을 터놓는것은 단장만이 아니었다.

공연을 참가하였던 공훈배우들이 리어울, 박광수, 량정숙 등무들의 심정도 다들바 없었다. 영광의 그날과 더불어 예술무대와 함께 보내온 수십년 세월의 결과를 받으며 감동에 젖어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도내 예술단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술의 심장을 뛰민것은 착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상에 예술이 높은 훌륭한 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참된 창조자, 결연한 옹호자로

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불같은 결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예술인이 명작창작전투로 돌출되고있다.

부단장 정일무동무와 창작가들이 단장 장흥진, 김성봉, 김경남, 리희안, 김광남동무들이 이제 무대에 올릴데 될 음악무용종합공연준비를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며 더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나의 종목을 선택해도 당의 의도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연전반의 사상에예술을 보다 높이고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내용을 일관시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성과작으로 되게 하는데 모를 막고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관평으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리우기 위해서라도 더러워도 과건된 경제선동대원들을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며 경제선동활동을 맹렬히 벌려나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도내 예술단에서는 배우들의 기량을 더 높이기 위한 원바람이 일고있다.

창작적기량, 예술적기량은 공예활동의 생명선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기량을 높이기 위해 정열을 쏟아부으려는 창작가들과 예술인들, 판공있는 배우우라고 하여 자만하지 않고 신인배우들은 더 분발하여 서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원원과 박사사원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나라의 교육자, 과학자후비들을 튼튼히 키워냄으로써 대학의 교원진영과 과학력량을 전방성있게 꾸려나가야 하겠 습니다.》

평성수의 축산대학 박사학위는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전국적으로 소문난 단위들의 하나이다.

최근에만 하여도 여기 박사학위에서는 2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보 여주기사업이 진행되 었다.

나지막한 산기슭에 아담하게 일떠선 2층 짜리 건물이며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이 갖추 어진 품유미실과 종합강의실, 박사학위를 포 근히 감사하는 여러 종류의 파일나무들... 이뿐이 아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호실들과 여러가지 부식물이고 등 훌륭한 생활조건을 놓고 누구나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본사기자 공로 희

평성수의 축산대학에서

박사학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종교과학자 학원구성발전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발명권과 과학기술 성과도입증을 비롯하여 지난 1년 동안에 박사학위 받은 각종 증서들만도 30여건에 달한다.

이 성과속에는 박사학위교육의 질제고에 바친 대학일꾼들과 박사원지도교원들의 숨은 노력 이 그대로 스며들어있다.

몇해전 박사원원장으로 사임하게 된 박사 리기호동무의 심정은 무거웠다. 달성한 성과도 있었지만 발전하는 교육현실에 비추어볼 때 박사원교육 사업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그는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추진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새겨며 박사원교육사업을 개선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 갔다.

오늘 박사학위 자랑한 교육사업성과를 이룩하며 본보기를 창조해나갈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것은 아첨 일꾼들의 일본배이다. 평성수의 축산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은 박사원교육과정에 어울린 모든 실험실습을 충실히 보장할수 있게 교육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힘있게 실천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은남

평양제1목욕탕개건공사를 다그친다

평양제1목욕탕이 빠른 속도로 개건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종전의 건물보다 2, 5배나 더 크고 현대적으로 건설되는 평양제1목욕탕은 물놀이장과 대중목욕탕, 개별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편의시설들과 청량음료점을 갖춘 대중봉사기 지이다.

현재 목욕탕건설은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외부, 내부기술완공사와 지붕공사가 힘있게 벌여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편의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아버 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평양제1목욕탕은 전후복구건설시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총합적인 위생적인봉사를 기지로 일떠선 의의있는 건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 있는 평양제1목욕탕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 할데 대한 온정어린 조치를 위해

주셨다.

평양시 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온정깊은 사랑이 하루빨리 수도시민들에게 가장대목 하기 위해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 건설에 투입시켰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시장위원회 의 지도밑에 전만목표와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시공지도와 기술지도를 따라서는 한편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양시건설사단 중구역려단의 건설자들은 지난 3월 중순 까지 골조공사를 끝낸 총건물 1개체로 완공해내고는 공사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 하고있다.

려단장 박형수, 정치부장이철우, 참모장 함병선동무 들을 비롯한 일꾼들은 공사를 하루빨리 끝낼 드높은 열의를 안고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한편 이선작적의 포병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건설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화신식신동을 전투적 으로 페기있게 벌리고 대대, 중대별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조직하여 건설장에 혁명적 열정과 량만이 차넘치게 하고 있다.

일꾼들의 힘있는 정치사업, 이선작적의 모범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건설장에서 내부기술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기술공사와 지붕공사가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하부망건설에 참가한 일꾼들과 로동자들에 자제의 힘으로 공사를 성과적으로 내밀고 있다.

건설자들의 힘찬 기상에 발맞추어 식료일용품공업 아래 단위에서 일하는 김동숙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중첩원들이 건설자재보장과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성, 중앙기관들과 시, 구역급기관들, 시안의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건설장에 달려와 그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명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더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서는 평양제1목욕탕은 평양시건설사단 건설자들과 수많은 지원자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완공의 날을 가까워 하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염주고려약공에서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높이 고려약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꾼들은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격경쟁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부당적인 예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이와 함께 원료를 충분히 보장

해주기 위해 여러 정보의 약초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일약적임반 반장 리진녀동무와 작업반원들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1, 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이어 삼년도로 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기세 드높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능통신원 최영희



조국의 광물자원을 찾아 협산준경을 넘으며 애국의 마음을 버쳐가는 공업의 척추형들 —강원도담사관리국에서— 본사기자 적음

힘있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평양원 원하리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모내기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진 판을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나가고있다.

이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작업의 일환인 호소성이 강한 예술선동을 기백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전투적기구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신동시와 합창, 제담, 제창 이야기 등 다채로운 노래와 화술소품들을 통하여 농장원들은 주제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농장별로 달려나간 보건일군들

이런 결심과 의지를 안고 도인민위원회일꾼들은 농업건설을 힘껏 돌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들은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 사업을 하나하나 짜고들었다.

아버 이수령님의 령도업적 이 깃들여있는 병성군 육성리인민병원을 현장치료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이월의 경험은 일반화하기 위한 도적인 보 여주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단위에서 립상기술수준이 높은 유능한 의료일꾼들이 망라된 현장치료대를 조직하는 한편 진단설비들과 약품을 갖추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도 하였다.

멘 터일으로써는 협동법들로 달려나간 도안의 의료일꾼들은 모내기작전에 현장치료대들을 먼저 전개하고 포진들을 찾아다니며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현장의료봉사를 시작하였다. 짊이 있으면 농사일로 도와주면서 현장의료봉사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고있는 의료일꾼들의 뜨거운 정신과 헌신적노력은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원장 구관영동무를 비롯한 립상 기술수준이 높은 수임명의 의료일꾼들이 현장치료대에 망라되었다. 이들은 북부초 등 보건소에서도 지휘하던 안락 군인민위원회의 한 일꾼은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지원 기재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도와줄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던 그는 군안의 의료일꾼들에게 농장원들의 건강회복에 따른 장려금을 국가가 배분하자고 호소하였다.

군안의 모든 의료일꾼들이 이에 호응해나갔다. 그들은 농촌을 비롯한 수심중의 효능높은 치료약물과 많은 량의 건강음료들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 리안의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주었다. 농사일의 일환에 작업현장에서 뜨거운 지성이 담긴 고려 약물과 건강음료를 안겨주는 보건일꾼들의 모습에서

본사기자

김책시 룡호리 진료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줍니다.》

김책시 룡호리 진료소의 의료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을 실패로 만들어갈 마음없이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나고 있다.

모내기전투의 시작부터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진료소의 의료일꾼들은 병증상에 따라 리안의 주민들을 상급병원에서 시급히 과송할수 있는 민간의 준비도 철저히 하였다.

모든 치료조건을 철저히 갖추고 현장에까지 나가 의료봉사를 진행할데도 함께 하는 룡호리 진료소의 의료일꾼들의 전투적인 일본배는 농장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뜨거운 지성을 안고

속천군 약전리인민병원 의료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일군은 인강생명의 기사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담당자입니다.》

모내기전투로 성수가 난 속천군 약전리생계 10작업반원들은 며칠전에도 오전작업과제를 두세시간도 못되어 엉겁대 해계된 후련한 마음을 안고 포진머리에서 휴식하고있다. 서로 약속이나 한것처럼 모두의 눈길은 마을로 향한 뜰터로 향했다. 휴식시간이 되면 약전리인민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을 기다리는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었다.

날마다 이맘때면 약초를 따며 만든 열약차를 가지고 포진을 찾는 김춘열, 김춘열, 함은희동무를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이다.

환자치료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지점을 찾아다니며 위

열의를 북돋아주며

동안 일하는 조건에 맞게 그들은 필요한 의료대계를 철저히 세우는 한편 감기 등을 미리막기 위한 위생선전사업도 하고있다. 또한 진료소의 의료일꾼들은 리안의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는 물론 농장원들의 가정도 자주 찾아 앉는 환자들을 잃는것을 막아주고 제때에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본사기자

미국아시아협회대표단 도착

회장 비사르하 니르브하이 박사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조선중앙통신】

실험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은 공교히 다정민적음
본사기자 방경찬

